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58, No.7 (August 2008) pp.31-42

19세기 Corset pattern 연구

박 상 희
안양과학대학 패션스타일리스트과 겸임교수

A Study on Corset Patterns of the 19th Century

Sanghee Park
Concurrent Professor, Dept of Fashion Stylist, Anyang Technical College
(투고일: 2008. 3. 25, 심사(수정)일: 2008. 6. 17, 게재확정일: 2008. 7. 18)

ABSTRACT

The fashion of the 19C had been through many diverse styles, i.e. Empire style, Romantic style, Crinoline style and the Bustle style. These styles had emphasized a certain figures, such as exaggerated hourglass silhouette of crinoline style or S silhouette of bustle style. Following the trends, corsets became more than underwears. Actually they supported the fashion of the 19C.

Apparently, the corsets had been evolved in many aspects. Patterns, materials and trimmings were developed and refined to make torso figures desirable. The initial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find out how they developed corset patterns to make such a diverse figures, so that the techniques can be adopted in contemporary pattern design.

The 16 corsets and their patterns were quoted from books related the subject. The patterns were redrawn of same scale for the comparative study concerning cutting lines and measurements. Coming to the late, more curved lines and more segmented cutting were used to make body more of glamour and natural. Gussets were another key technique to make them work. Various sized and shaped gussets were used to follow the trends of ever changing.

Key words: corset(코르셋), pattern(패턴), empire style(엠파이어 스타일), romantic style(로맨틱 스타일), crinoline style(크리놀린 스타일), bustle style(버슬 스타일)

Sanghee Park, e-mail: ghsanghee@naver.com

Ⅰ. 서론

16세기말부터 Corset 패션은 400년간 이어져 왔는데 특히 프랑스혁명에서 1차 대전까지는 코르셋이 완전히 대중화된 시기였다.[1] 이 기간 중에도 역사적으로 패션이 변함에 따라 표현하고자 하는 복식 형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코르셋의 형태도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다. 19세기 이전에는 딱딱한 원추형의 코르셋이 가슴을 압박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19세기가 되어서는 육체적 억압이 훨씬 증가하고 자기 훈련을 통해 이상적인 신체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 코르셋이 사용되면서 크리놀린이나 버슬스타일처럼 여성의 신체를 과장시키거나 극도로 축소시키는 모순적인 특성[2]을 보이는 보다 정교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의 코르셋이 이렇듯 다양한 형태적 특성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분화된 질감과 물성을 지닌 소재가 개발되어 중산층들에게도 보급되었고, 패턴 및 봉제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르셋 착용 계층의 확산으로 전문 제조업체가 등장함으로서 현대 파운데이션 가먼트의 대량제작·생산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형태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의복구성 측면에서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던 19세기 코르셋 패턴의 변화를 그 코르셋을 착용함으로써 표현하고자 했던 실루엣의 변화와 연관 지어 연구하고자 한다.

Ⅱ. 19세기 코르셋 형태의 변화

1. 신고전주의 시대(1790~1820년)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 여성복식은 자유와 간편함을 추구하게 되고 1790년대부터 19세기 전환기까지 여성은 로브 앙 슈미즈(robe en chemise)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이는 목과 가슴 바로아래 잔주름을 넣어 허리선을 높인 엠파이어 스타일로 얇은 면소재가 주였으나[3] 1800년 이후 슈미즈 패션이 수그러들면서 궁중용 패션은 다시 전통적인 새틴이나 벨벳소재로 변하고 코르셋도 다시 착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 코르셋은 엉덩이부터 앞가슴 바로 밑까지 다다라 가슴을 위로 올려주는 형태가 주였다. 따라서 〈표 1〉과 같이 하이 웨이스트라인의 직선적인 실루엣이 주를 이루었다.

2. 낭만주의 시대(1820~1850년)

1815년 이후 정치적, 경제적 변화가 심해지면서 1825년에는 고전주의가 쇠퇴하고 낭만주의가 크게 유행하였다. 여성복식의 실질적인 변화는 1820년 이후 가는 허리와 부푼 치마를 추구하는 낭만주의적 유행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다양한 코르셋 제작 방법이 고안되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점차 허리선이 원래의 위치로 내려오면서 코르셋의 길이는 길어지고 엉덩이선 까지 내려오고 딱딱하고 직선적인 신체 라인이 아니라 가는 허리와 곡선적인 실루엣이 강조되었다.[4] 상의는 몸에 밀착된 형태로 어깨선이 밑으로 쳐지고 등이 좁은 형태가 유행하였으며 벨트로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로맨틱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낭만주의 시대의 초기에는 상의가 타이트해지고 허리선이 원래의 위치로 내려오면서 길어지고 스커트 역시 타이트한 형태였으며 소매도 퍼프가 달린 긴소매가 잠시 유행하였다. 점차 스커트가 부풀려 엉덩이 부분이 둥글게 부풀려지고 아래는 직선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변화하고 허리는 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스커트는 단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스커트로 변화하게 되었다.

1840년경에는 코르셋의 다양한 여밈 장치가 개발되어 여성들은 허리를 더 타이트하게 조이고 혼자서 착장이 가능하게[5] 되었으나 이는 기절, 현기증, 척추만곡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3. 빅토리아시대(1850~1870년)

산업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가볍고 유연한 버팀대의 페티코트와 코르셋이 등장하여 착용이 간편해졌다. 19세기 이전의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어 가는 허리와 부풀은 엉덩이를 과장되게 표현하던 코르셋은

귀부인과 부르주아 여성의 전유물로 지위와 특권의 상징이었다. 이렇듯 고가의 코르셋은 이 시기에 염가의 제품이 생산되면서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6] 19세기 중반 중류계급 가정의 78%가 코르셋을 소유하였고 19세기 후반에는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코르셋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개 이상의 코르셋을 소유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7]

스커트가 더욱 풍성해지고 가는 허리가 유행하였으며 화장품이 신여성이나 여배우의 전유물이었던 시기의 코르셋은 평범한 여성들이 자신의 외양을 바꿀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었다. 코르셋은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것이 주였으며 크리놀린 패티코트로 인해 엉덩이부분까지 커버할 필요가 없어졌다. 따라서 코르셋은 가슴을 풍만하게 보이면서 허리를 가늘게 조여주는 짧은 형태의 코르셋이 되었다.[8] 또한 여성들은 체형이 망가질까봐, 멋진 옷을 소화하지 못할까봐, 몸이 처질까봐 등의 두려움으로 계속 코르셋을 착용하였다.[5]

4. 19세기말(1870~1900년)

19세기말은 세계무역이 증가하고 중산계급의 부가 상승하였으며 신분 지위보다는 경제력이 중시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의 스커트는 정돈된 허리와 몸에 꼭 맞는 보디스와 연결된 형태로 가슴은 한껏 부풀리고 허리는 졸라맸으며 엉덩이는 압축시키거나 패드를 넣어 부풀리는 스타일이 유행되었다. 코르셋의 길이는 〈표 1〉과 같이 길어지고 풍만한 가슴선을 위해 등을 평편하게 유지시킴으로서 등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졌다. 보디스는 정교한 실루엣을 위해 솔기와 다트가 많았으며 여성들은 언제라도 유행모드에 자신의 몸을 맞추고자 하였다. 여성이 남성복과 같은 재킷류를 입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의복의 규범이 철저히 지켜지는 시기였다.[9]

스포츠의 발달로 여성의 몸이 활력적으로 변하고 몸통을 지지해 주고 가슴을 받쳐주기 위해 사용하던 코르셋의 기능을 근육이 대신하게 되었지만 당시의 코르셋은 여성들의 선택과 관계없이 점점 구속적으로 변해갔다. 1870년대의 코르셋은 스팀으로 코르셋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 도입되어 완벽한 신체 형태를 지닌 구리 마네킹 주위로 천을 잡아당기고 풀을 먹인 후 증기를 쐬고 건조시켜서 빳빳하게 틀을 만들어 코르셋을 제작하였다.[10] 따라서 여성들은 구리 마네킹과 같은 이상적인 체형을 위해 그 틀에 몸을 맞추고자 하였다.[6]

신체를 강하게 졸라매는 코르셋으로 여성 건강에 관한 논쟁이 불거지자 의사들과 의류제조업자들은 개선된,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혁신적인 코르셋을 고안하는데 그 중 의사이자 코르셋 디자이너인 조세핀 이네스 가슈 사로트라는 앞면이 곧은 코르셋을 제작하여 남는 살을 가슴과 엉덩이로 밀어내고 재료는 강철로 보강하였다. 코르크나 나무줄기는 잘 부러지고, 말총은 충분히 빳빳하지 않았으며, 고래뼈와 들소 연골은 가격이 비싸고 귀하였기 때문에, 싸고 다른 재료들에 비해 강도가 높은 강철이 단연 선호되었다. 19세기 말에는 강철로 뼈대를 넣은 코르셋 덕분에 허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여성의 꼬리뼈 부분은 뒤쪽으로 밀려나면서 완곡한 형태의 S자형으로 실루엣이 변화되었다.[11]

영국의 유명 코르셋 제조업자 마담 록시 앤 캐플린 역시 건강코르셋을 제시하고 그 우월함을 프랑스 의사들로 하여금 공식화하게 하였다. 그녀는 여성이 코르셋을 착용하는 것은 가능한 오랫동안 젊고 매력적인 몸매를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전면의 엉덩뼈를 복부에 따라서 곡선으로 하지 않고 평평한 일직선이 되게 하는 건강 코르셋을 권장하였다. 건강 코르셋이라는 명목 하에 많은 종류의 코르셋이 제조되었는데 이를 위해 1870년대에서 1900년 사이에 1천 건 이상의 코르셋 개선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았다. 이렇게 높은 코르셋에 대한 관심으로 코르셋은 속옷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상점의 전면에 걸리고 가격과 제조방법이 상세히 기술된 다양한 잡지와 선전물까지 성행하게 되었다.[12] 19세기 말에는 허리를 더욱 가늘게 하기위해 맨 아래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까지 성행하였고 많은 돌팔이 의사들에 의해 엉터리 코르셋들도 제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코르셋 착용은 지속되었고 특허를 받은 건강 코르셋 역시 장기간 착용하면 신체를 독특한 S

〈표 1〉 19세기 코르셋 형태의 변화[4)12)13)]

시 기	스 타 일	실 루 엣		코르셋형태	시 대 스 타 일 특 징
신고전주의 시대 ~1820년	엠파이어스타일	H자형			하이웨이스트 직선적 실루엣
낭만주의 시대 ~1850년	로맨틱스타일	아우어글래스형			허리가 원 위치로 내려옴 어깨와 스커트가 부풀려짐
빅토리아 시대 ~1870년	크리놀린스타일	X자형			가는 허리가 강조 코르셋의 길이가 짧아짐 스커트가 부풀려짐
19세기말 ~1900년	버슬스타일	S자형			코르셋의 길이가 길어짐 가슴선을 살리기 위해 어깨를 펴서 등을 평편하게 유지

자로 변형시켜 척추만곡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였다.[13)]

Ⅲ. 연구 방법

1. 코르셋 패턴수집

코르셋 패턴은 참고문헌을 통하여 제시된 패턴들 중 1800년대의 것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1800년대의 코르셋은 많은 실물들이 남겨져 있고 그 당시 제조업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카탈로그 등이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 비교적 정확한 치수와 패턴의 자료들이 많이 존재한다. 수집된 패턴의 참고문헌은 Norah Waugh의 『Corsets and Crinolines』, Margot Hamilton Hill과 Peter A. Bucknell의 『The Evolution of Fashion』, Robert Doyle의 『Waisted Effort』와, Frances Grimble의 『Reconstruction Era Fashions』, Katherine Strand Holkboer의 『Patterns for Theatrical Costumes』이다.

2. 코르셋 패턴 분석

문헌에 나타난 코르셋 패턴들은 $\frac{1}{2}$, 또는 $\frac{1}{4}$로 축소된 패턴, 앞길이와 뒤길이 등 중요 실측 치수만 표시된 것, 그리고 간단한 규격의 사이즈를 삽입한 것들로 되었다. 따라서 문헌에 제시된 패턴들 중에 정확한 실측치가 제시되어있는 패턴을 선별하고 이를 인치(inch) 방안지를 이용, 실물 사이즈와 같도록 제작하였다. 제작된 패턴의 각 부위를 cm로 실측하고 패턴의 윗부분과 아랫 부분 중 가장 굵은 위치와 중간의 가장 가는 부분의 치수를 실측하였다. 엉덩이 길이까지 내려오지 않는 짧은 길이 경우는 가장 짧은 패턴을 기준으로 다른 패턴들도 실측하였다. 이들 각각의 패턴들을 동일한 배율로 제도하였으며 그 크기와 전체적인 패턴의 구성 형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중합하여 그 패턴과 실루엣의 형태를 고찰하고 드롭치와 각 시대 여성의 신체적 특징들을 고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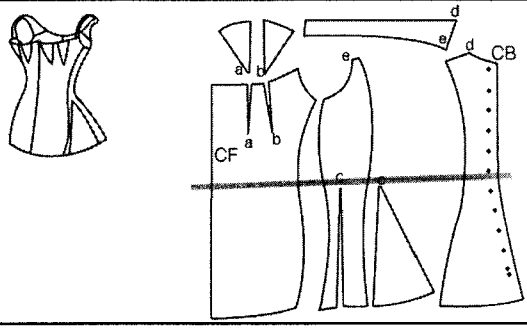
Ⅳ. 연구결과와 고찰

1. 코르셋 패턴의 형태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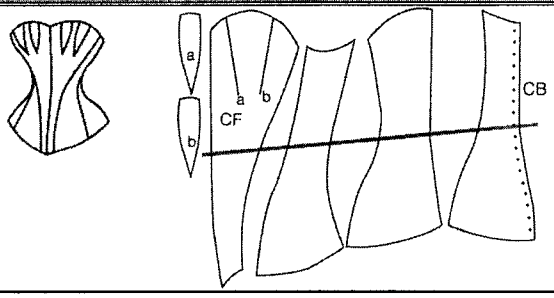
1) 신고전주의 시대의 코르셋 패턴

18세기까지의 가슴과 배를 평편하게 하고 허리를 조이는 원추형의 코르셋과 달리 19세기에는 웨이스트 라인이 올라가고 가슴을 강조함으로서 가슴부분

〈표 2〉 신고전주의시대(~1920년)의 코르셋 패턴(음영부분은 허리선을 표시)

패 턴	특 징
	◦ 1820년[4] ◦ 1/2가슴둘레 42cm ◦ 1/2허리둘레 26.5cm ◦ 1/2엉덩이둘레 44.5cm ◦ 뒤길이 37.8cm ◦ 앞길이 37.8cm ◦ 어깨끈이 있슴 ◦ 거시트의 형태가 직선적 ◦ 뒤중심이 곡선

〈표 3〉 낭만주의시대(~1850년)의 코르셋 패턴(음영부분은 허리선을 표시)

패 턴	특 징
	◦ 1844년[4][14][15] ◦ 1/2가슴둘레 44.5cm ◦ 1/2허리둘레 30cm ◦ 1/2엉덩이둘레 46cm ◦ 뒤길이 35.7cm ◦ 앞길이 42cm ◦ 거시트가 곡선의 형태 ◦ 패턴이 단순화 ◦ 뒤중심이 곡선

에 거시트(gusset)나 고어를 넣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8세기말에 유행한 얇은 소재의 의복을 더 이상 입지 않게 되면서 19세기 초에는 가슴을 감싸기보다는 가슴을 아래서 받쳐주는 가벼운 코르셋이 유행하였는데 프랑스에서는 짧은 웨이스트 라인이, 영국에서는 긴 웨이스트라인이 유행하였다.〈표 2〉

2) 낭만주의 시대의 코르셋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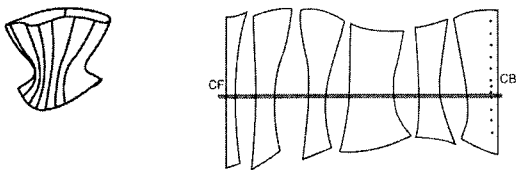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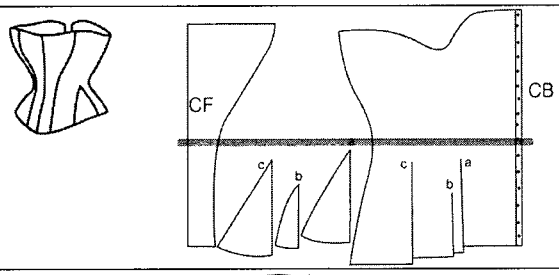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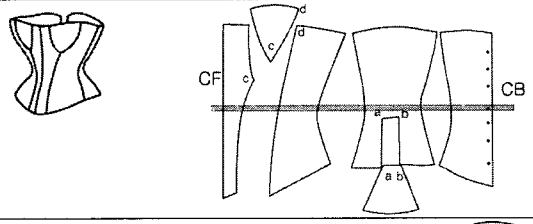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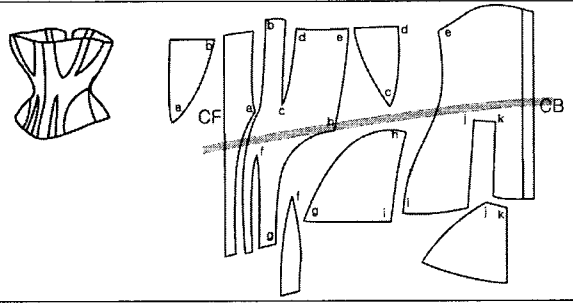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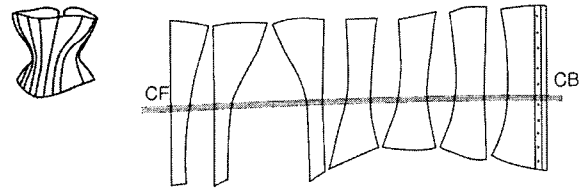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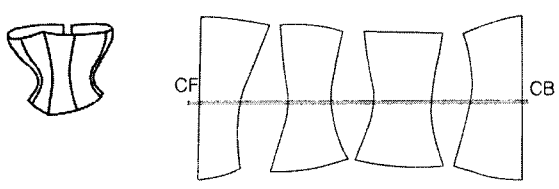
낭만주의 시대에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이 유행하여 코르셋은 가슴과 엉덩이 부분에 삼각형 또는 사각형의 무를 대고 길이도 가슴을 감싸면서 엉덩이까지 길어졌다. 네 조각의 직물과 무, 어깨끈으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코르셋의 구성이었다.〈표 3〉 특징적 변화는 고어의 패턴이 곡선으로 변화되고 가슴을 받치면서 감싸는 형태가 나타나 가슴의 BP를 지나는 앞길이가 길어진 것이다. 또한 뒤중심선과 대부분의 패턴의 선이 곡선이었으며 패턴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며 어깨끈이 없는 가벼운 코르셋도 등장했다.

3) 빅토리아시대의 코르셋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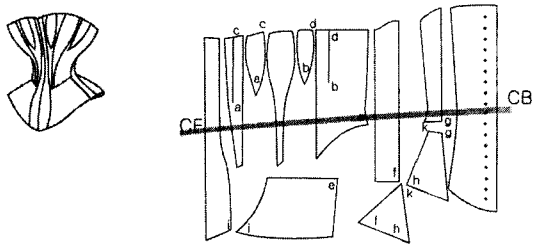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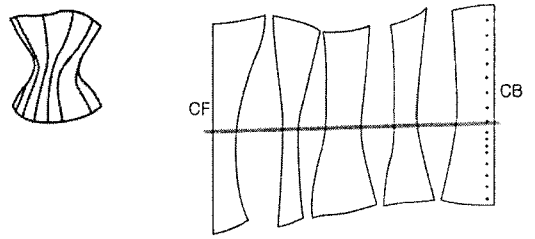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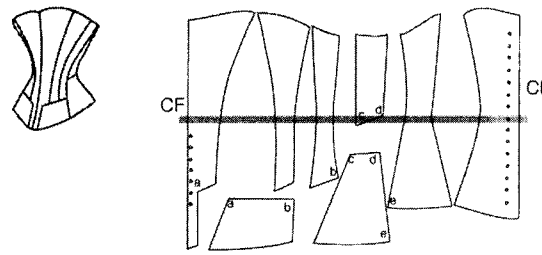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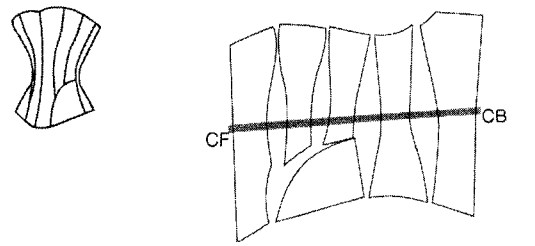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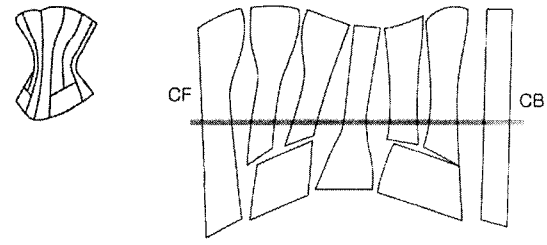
스커트가 점차 더 풍성해짐에 따라 코르셋은 짧아지고 스커트의 거대함으로 허리를 상대적으로 덜 조이게 되었지만 코르셋은 전체적으로 더욱 가늘어지고 상체를 곧추 세우는 스타일로 변화되었다. 실질적인 상의의 실루엣은 로맨틱 스타일과 별반 차이는 없었으나 코르셋의 패턴은 더 단순화되고 가벼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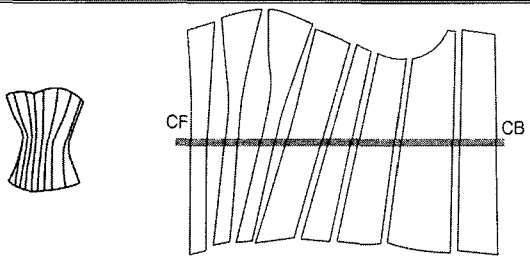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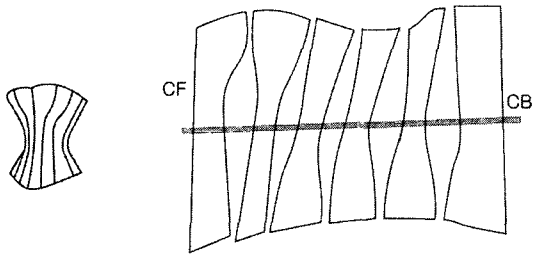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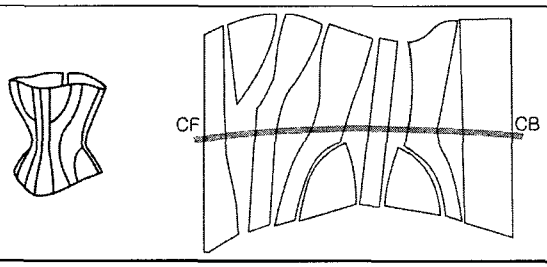
이전 시기에 비해 코르셋의 길이가 짧아지고 패턴 형태도 세로로 절개하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가 많이 보여졌다. 또한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을 살리는 형태로 가슴 또는 엉덩이에 고어를 넣는 형태의 패턴도 계속 존재하였다. 허리의 위치가 약간 올라가고 코르셋의 뒤중심이 직선의 형태로 변화한 것을 가장 큰

〈표 4〉 빅토리아시대(~1870년)의 코르셋패턴(음영부분은 허리선을 표시)

패 턴	특 징
	◦ 1860년[4)14)15)] ◦ 1/2가슴둘레 36.3cm ◦ 1/2허리둘레 23.8cm ◦ 1/2엉덩이둘레 36cm ◦ 뒤길이 23.6cm ◦ 앞길이 24.8cm ◦ 거시트나 고어가 없는 단순한 형태 ◦ 뒤중심이 직선 ◦ 길이가 짧은 스타일
	◦ 1867년[13)] ◦ 1/2가슴둘레 43cm ◦ 1/2허리둘레 28.5cm ◦ 1/2엉덩이둘레 51cm ◦ 뒤길이 37.3cm ◦ 앞길이 35.7cm ◦ 엉덩이부분에 많은 거시트가 달린 형태
	◦ 1868년(a)[13)] ◦ 1/2가슴둘레 44cm ◦ 1/2허리둘레 27.5cm ◦ 1/2엉덩이둘레 39.8cm ◦ 뒤길이 25.4cm ◦ 앞길이 28.6cm ◦ 길이가 짧은 형태 ◦ 가슴과 엉덩이에 고어를 사용
	◦ 1868년(b)[13)] ◦ 1/2가슴둘레 45.5cm ◦ 1/2허리둘레 32cm ◦ 1/2엉덩이둘레 50cm ◦ 뒤길이 31.1cm ◦ 앞길이 36.6cm ◦ 가슴을 많이 감싸는 스타일 ◦ 가슴과 엉덩이에 비교적 많은 고어를 사용 ◦ 입체적인 효과가 큼
	◦ 1868년(c)[13)] ◦ 1/2가슴둘레 48.2cm ◦ 1/2허리둘레 27.5cm ◦ 1/2엉덩이둘레 40.2cm ◦ 뒤길이 26.8cm ◦ 앞길이 26.8cm ◦ 길이가 짧은 형태 ◦ 가슴의 볼륨을 많이 살린 형태 ◦ 아랫배를 강하게 조임
	◦ 1868년(d)[13)] ◦ 1/2가슴둘레 44cm ◦ 1/2허리둘레 31cm ◦ 1/2엉덩이둘레 45cm ◦ 뒤길이 26.8cm ◦ 앞길이 26.8cm ◦ 길이가 짧은 형태 ◦ 가장 단순화된 형태

〈표 5〉 19세기말(~1900년)의 코르셋 패턴(음영부분은 허리선을 표시)

패 턴	특 징
	◦ 1873년[4] ◦ 1/2가슴둘레 37.cm ◦ 1/2허리둘레 26.5cm ◦ 1/2엉덩이둘레 39.5cm ◦ 뒤길이 33cm ◦ 앞길이 32.4cm ◦ 복잡한 패턴구조 ◦ 다양한 가슴고어와 엉덩이 고어를 사용 ◦ 길이가 긴 형태 ◦ 가슴과 엉덩이 전체를 감쌈
	◦ 1880년[4][14][15] ◦ 1/2가슴둘레 40.3cm ◦ 1/2허리둘레 25.5cm ◦ 1/2엉덩이둘레 41.5cm ◦ 뒤길이 35.7cm ◦ 앞길이 34cm ◦ 길이가 긴 형태 ◦ 고어가 없는 단순화된 형태
	◦ 1890년[4] ◦ 1/2가슴둘레 39cm ◦ 1/2허리둘레 26cm ◦ 1/2엉덩이둘레 43cm ◦ 뒤길이 33cm ◦ 앞길이 37.6cm ◦ 아랫배와 뒤중심을 같이 조여줌 ◦ 엉덩이의 볼륨을 살리고 가슴의 아래서 받쳐주는 스타일 ◦ 가슴을 아래에서 밀어 올려주는 형태 ◦ 어깨의 어깨뼈까지 감싸는 길이
	◦ 1892년[12] ◦ 1/2가슴둘레 37cm ◦ 1/2허리둘레 24.5cm ◦ 1/2엉덩이둘레 35cm ◦ 뒤길이 32cm ◦ 앞길이 32.5cm ◦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코르셋 ◦ 전체적인 볼륨감도 적음
	◦ 1893년[12] ◦ 1/2가슴둘레 42.5cm ◦ 1/2허리둘레 29.5cm ◦ 1/2엉덩이둘레 42cm ◦ 뒤길이 36cm ◦ 앞길이 35cm ◦ 가슴과 엉덩이의 볼륨감을 많이 살린 형태 ◦ 뒤중심이 직선

패 턴	특 징
	◦ 1896년(a)[12] ◦ 1/2 가슴둘레 46.5cm ◦ 1/2허리둘레 38cm ◦ 1/2엉덩이둘레 46cm ◦ 뒤길이 36.3cm ◦ 앞길이 36.7cm ◦ 볼륨감이 적은 패턴형태 ◦ 허리조임 없음
	◦ 1896년(b)[12] ◦ 1/2가슴둘레 42.5cm ◦ 1/2허리둘레 26cm ◦ 1/2엉덩이둘레 44.5cm ◦ 뒤길이 36.9cm ◦ 앞길이 36.3cm ◦ 길이가 길고 뒤길이가 길어 등을 평편하게 유지
	◦ 1897년[12] ◦ 1/2가슴둘레 43.5cm ◦ 1/2허리둘레 31cm ◦ 1/2엉덩이둘레 45cm ◦ 뒤길이 35.6cm ◦ 앞길이 35.6cm ◦ 가슴과 엉덩이 볼륨을 살린 형태 ◦ 옆의 패턴이 직선으로 된 것이 특징

변화라 볼 수 있다.〈표 4〉

4) 19세기말의 코르셋 패턴

버슬 스타일이 유행을 하던 19세기말에는 웨이스트 라인이 원래의 허리위치로 돌아오고 엉덩이에 바짝 붙는 긴 형태의 코르셋이 유행하였다. 스커트의 앞이 평평하고 뒷모습은 허리아래에서 코르셋을 착용한 위에 부풀린 모양의 버슬패드 등을 덧입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코르셋은 가슴과 엉덩이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무엇보다 가슴에서 허리에 이르는 라인을 슬림하게 유지하면서 가슴을 펴고 아랫배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 척추와 복부를 일직선으로 유지하는 건강 코르셋이 유행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코르셋의 길이가 길어지고 패턴의 뒤중심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복부를 평편하게 엉덩뼈(hip-bone)까지 유지하게 함으로서 앞판의 가슴과 허리의 다아트 분량이 적고 직선적인 패턴형태를 띤다.〈표 5〉

2. 코르셋 패턴의 사이즈 고찰

19세기 코르셋은 〈표 6〉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비슷하거나 표준 드롭치인 5cm이내의 것이 가장 많았고, 패턴의 길이에 따라, 또는 코르셋이 개인의 맞춤 형태의 것이어서 가슴둘레가 엉덩이 둘레에 비해 상당히 크거나 적은 경우는 개인차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슴둘레가 엉덩이 둘레보다 3~5cm 정도 작은 형태의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났으며 엉덩이둘레가 가슴둘레보다 작은 경우는 코르셋의 길이가 짧아 전체 코르셋의 밑단이 엉덩이의 위쪽만을 감싸 중간 엉덩이둘레에 가깝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코르셋의 길이는 전기와 후기에는 길고 1860년대

〈표 6〉 엉덩이 둘레와 허리둘레의 비율

	연도	가슴둘레 (cm)	허리둘레 (cm)	엉덩이둘레 밑단최대둘레(cm)	허리위치 5cm아래측	Drop치 (cm)	가슴둘레 - 허리둘레	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엠파이어	1820	**84.0**	53.0	**89.0**	58.0	5.0	31	93%	59%
낭만주의	1844	**89.0**	60.0	**92.0**	62.0	3.0	29	97%	65%
빅토리아시대	1860	**73.6**	47.6	72.0	72.0		26	105%	66%
	1867	86.0	57.0	102.0	71.4	16.0	29	84%	55%
	1868(a)	88.0	55.0	79.5	64.2		33	111%	69%
	1868(b)	91.0	64.0	100	92.4	9.0	27	91%	64%
	1868(c)	96.4	55.0	80.4	63.0		41	119%	68%
	1868(d)	**88.0**	62.0	90.0	70.2	2.0	26	98%	69%
평균		**87.1**	**56.8**	**87.3**	**72.2**		**30.3**	**101.3%**	**65.1%**
19세기말	1873	**74.0**	53.0	79.0	60.0	5.0	21	94%	67%
	1880	**80.0**	50.0	83.0	57.8	3.0	30	96%	60%
	1890	78.0	52.0	86.0	66.2	9.0	26	91%	60%
	1892	74.0	49.0	70.0	53.0	-4.0	25	106%	70%
	1893	**85.0**	59.0	**84.0**	65.0	2.0	26	101%	70%
	1896(a)	**93.0**	76.0	**92.0**	84.8	-1.0	17	101%	84%
	1896(b)	**85.0**	52.0	**89.0**	66.8	4.0	32	95%	58%
	1897	**87.0**	62.0	**90.0**	68.8	3.0	25	97%	69%
평균		**82.0**	56.6	84.1	65.3		25.2	97.6%	67.3%

〈표 7〉 코르셋 앞중심 길이와 뒤중심 길이

(단위:cm)

시기	엠파이어	낭만주의	빅토리아						
	1820	1844	1860	1867	1868(a)	1868(b)	1868(c)	1868(d)	평균
앞	37.8	42.0	24.8	35.7	38.6	36.6	26.8	26.8	27.0
뒤	37.8	35.7	23.6	37.3	25.4	31.1	26.8	26.8	24.4
시기	19세기말								
	1873	1880	1890	1892	1893	1896(a)	1896(b)	1897	평균
앞	32.4	34.0	37.6	32.5	35.0	36.7	36.3	35.6	35.0
뒤	33.0	35.7	33.0	32.0	36.0	36.3	36.9	35.6	34.5

로맨틱 시대와 크리놀린 시대에는 짧아졌다. 전기는 신고전주의 경향으로 하이웨이스트의 직선적인 실루엣과 얇은 슈미즈 드레스가 유행하여 코르셋이 가슴은 풍만하게 볼륨감을 살리면서 엉덩이선까지 커버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후기의 버슬시대에는 S자형의 실루엣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르셋의 윗단은 BP의 위치보다는 약간 높은 곳부터 커버를 하면서 가슴의 볼륨감을 살리고, 아랫배와 등은 납작하고 평편하게 하고, 엉덩이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코르셋의 밑단은 엉덩이선에 다다르도록 하였다. 그러나 로맨틱시대와 크리놀린 시대에는 가는 허리와 넓은 스커트가 유행되는 시기였으므로 넓은 스커트로 인해 코르셋의 길이는 짧아도 무방하였다. 허리아래는 코르셋으로 실루엣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치마를 부풀리는 다양한 페티코트가 X자형 실루엣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코르셋은 가슴의

〈표 8〉 19세기 여성의류 사이즈 차트

(단위:cm)

	아동 여성(Girls)				성인여성(Misses)			
연 령	6	7	8	9	10	12	14	16
가 슴 둘 레	61.0	63.6	66.1	68.7	73.8	76.3	78.9	83.9
허 리 둘 레	58.5	59.1	59.7	61.0	63.6	61.7	61.0	59.8
엉덩이 둘레	68.6	71.2	73.8	76.4	78.9	86.5	94.1	101.7

출처: Nancy Villa Bryk (1988). *American Dress Pattern Catalogs*, p. 74.

볼륨감은 살리고 허리를 강하게 조이는 형태가 주였으며 부푼 스커트는 상대적으로 허리를 더욱 가늘게 보이도록 하였다.

이 시기의 허리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의 비율이 70%일 때 가장 매력적으로 느낀다는[6]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19세기에는 여성의 허리 비율은 이보다 작은 비율이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몇몇의 경우는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보여지는데 이는 코르셋이 여성의 허리를 강하게 조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변형시켰음을 의미한다.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도 현재의 표준 사이즈 치수와 비교해 볼 때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ISO의 표준 신체 사이즈의 경우[16]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이가 20cm내외인 것에 반하여 19세기동안의 그 차이는 25cm이상으로 비교적 크다. 이는 허리를 강하게 조이는 반면 가슴과 엉덩이는 코르셋으로 조이고 삐져나온 남는 살을 가슴과 엉덩이로 보냄으로서 볼륨감을 살려 그 편차가 오히려 크다.

19세기의 코르셋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코르셋을 맞춤복처럼 제작·판매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이즈를 〈표 8〉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의류업체가 주축이 되는 월간 잡지에 제시되어지기는[17] 하지만 여성고객이 원하는 바디실루엣을 위하여 반드시 가봉단계를 거쳐 제작하였다. 여자아이의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가 증가하였으나 성인 여성의 경우는 가슴둘레와 엉덩이둘레가 증가하였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허리둘레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이즈 차트만 보더라도 이 시기에 많은 여성들이 가는 허리를 고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코르셋의 구성방법 고찰

19세기 코르셋은 거시트 또는 고어가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초기 코르셋의 패턴은 직선을 사용하여 입체적이긴 하지만 실루엣이 부드럽지가 못하였기 때문에 패턴의 일부분을 절개하여 그 사이에 거시트나 고어와 같은 무를 넣어 봉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패턴이 점차 더 입체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의 볼륨을 살리는 쪽으로 발전하면서 패턴을 다양하게 분할하고 그 사이에 거시트를 넣거나 또는 모든 패턴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제작하게 되었다. 특히 가슴과 엉덩이 볼륨을 살리기 위해 이 부분에 주로 커브가 심한 곡선이 사용되었는데 엉덩이부분은 중앙보다는 옆선에 곡선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는 오히려 코르셋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또는 원부자재의 발달로 패턴의 형태가 단순해지고 거시트와 같은 무의 사용빈도도 줄어들었다.[4] 패턴의 선은 주로 곡선을 사용하고 어깨끈 사용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 볼륨감을 살리는 19세기 이전의 코르셋 형태와 달리 가슴의 원위치에서 볼륨감을 살리면서 허리를 가늘게 조임으로서 코르셋이 흘러내릴 위험이 적어졌지 때문이다.

가장 큰 패턴의 변화는 19세기 전반기에는 뒤중심이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과 같이 약한 S자형의 곡선을 보이지만 후반기로 들어서서는 완전히 직선모양을 띤다. 이는 건강코르셋의 유행과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이는 등에서 엉덩이 전반 꼬리뼈 부근까지 일직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등이 평편하고 좁은

형태가 유행하여 대부분의 패턴이 앞판의 폭이 넓고 입체적인 것에 반하여 뒤판은 폭이 좁고 특히 뒤중심쪽의 패턴은 거의 직선적이 형태를 띤다. 또한 뒤판의 패턴은 어깨뼈를 눌러주기 위해 길이가 길었는데 어깨뼈 위치의 패턴은 직선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앞판도 아랫배를 납작하게 눌러주기 위해 버스크의 사용이 줄고 앞중심 패턴의 아래 부분은 한 장의 패턴을 사용하여 평편하게 하거나 여러 패턴이 사용될 때에는 직선으로 하였다.

신체를 탄탄하게 조여주기 위해 다양한 심대를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고려뼈와 나무줄기, 강철 및 다양한 굵기의 노끈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심대들은 그 끝이 튀어나와서 신체를 상하게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그 끝을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하였으며 코르셋의 안쪽 시접을 정리하여 심대를 넣고 겉 쪽에서 린넨 테잎으로 감싸서 봉제하였다. 또한 심대의 끝부분은 한번 더 잔 봉제를 하여 심대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였다.[18] 밑단의 약 1.2cm 정도를 봉제하지않고 창구멍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세탁시에 심대제거를 용이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뒤중삼과 고래뼈나 강철 뼈대의 위쪽은 노끈으로 가장자리를 마무리하는데 이는 심대가 나오지 않도록 방지역할을 한다.[13]

V. 결론

19세기 이전 코르셋이 가슴을 밀어 올려 가슴을 풍만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19세기 이후 코르셋은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내려오고 볼륨감을 자연스럽게 살리면서 허리는 단단하게 조여진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 시기의 코르셋은 패턴과 형태, 소재 등 많은 면에서 변화와 발전을 보여 19세기 코르셋 패턴이 현대 파운데이션 가먼트 패턴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신고전주의 시대의 코르셋은 패턴의 조각 수가 적고 직선의 거시트 조각을 사용하여 가슴의 입체감을 살렸는데 몸통 전체 길이가 길었다. 하이웨이스트 라인의 유행으로 허리를 심하게 조이지는 않았으나 가슴을 원위치로 돌려놓으면서 볼륨을 살린 패턴으로 발전되어 16세기말부터 이어진 코르셋의 형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 허리가 원 위치로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가는 허리가 유행하였다. 처진 어깨와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가 유행하던 시기로 코르셋은 가슴 전체를 감싸면서 볼륨을 살리고 허리를 가늘게 조이는 형태로 변화되었으며 패턴이 단순화되고 곡선의 사용이 많아졌다. 과장된 X자형 실루엣이 유행하던 크리놀린 시대에는 크리놀린 페티코트의 등장으로 코르셋의 길이가 짧아졌다. 또한 패턴은 세로로 절개하여 거시트의 사용이 줄고 단순한 형태로 변했다. 짧아졌던 코르셋은 버슬스타일이 유행하면서 그 길이가 엉덩이선 까지 길어지고 가슴의 볼륨감을 살리고 S자형 실루엣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어깨를 펴고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등을 납작하고 평편하게 유지하도록 코르셋 패턴이 변화하였다. 즉 코르셋의 뒤중심을 직선으로 하고 뒤판의 패턴 폭을 좁게 그리고, 어깨뼈의 위치까지 감싸고 직선적인 패턴선을 사용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의 비율과 허리둘레와 가슴둘레와의 차이를 살펴볼 때 시대 전반에 걸쳐 비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버슬스타일이 유행하던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욱 가는 허리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버슬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허리를 무리하게 조이기보다 패턴의 변화를 통해 S자형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19세기의 코르셋은 유행경향에 따른 패턴의 변화 주기가 짧고 효과적인 신체교정을 위한 다양한 패턴 제작법이 발달하였으므로 이들 패턴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Valerie Steele (2001). The Corset Yale University Press, pp. 1-35.
2) 김소영 (2007). 패션과 신체. 서울: 한국학술정보, pp. 24-25.
3) Carl Kőhler (1968). *A History of Costume*.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pp. 390-402.
4) Norah Waugh (2000). *Corsets and Crinolines*. New York: Routledge/Theatre Art Books, pp. 75-83.
5) 테레사 리오단 저, 오혜경 역 (2005). 아름다움의 발명. 서울: 마고북스, pp. 224-240.
6) 이의정, 김소영 (2001). 언더웨어. 서울: 교학연구사,

pp. 54-62.
7) 다이애너 크레이 저, 서미석 역 (2004). 패션의 문화와 사회사. 서울: 한길사.
8) Phyllis Tortora & Keith Eubank (1994). *Survey of Historic Costum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p. 530-550.
9) François Boucher (1987).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p. 350-360.
10) Lucy Johnston (2005). *Nineteenth Century Fashion in Detail.* New York: V&A Publications, pp. 144-172.
11) J. 앤더슨 블랙, 매쥐가랜드 저, 윤길순 역 (2005). 세계패션사. 서울: 간디서원, 356-363.
12) Robert Doyle (1997). *Waisted Effort.* Halifax: Sartorial Press Publication, pp. 151-167.
13) Frances Grimble (2001). *Reconstruction Era Fashions.* San francisco: Lavolta Press, 65-360.
14) Margot Hamilton Hill·Peter A. Bucknell (1967). *The Evolution of Fashion.* London: BT Batsford Ltd, pp. 161-181.
15) Katherine Strand Holkboer (1998). *Patterns for Theatrical Costumes.* Hollywood: Costume & Fashion Press.
16) 이형숙, 남윤자 (2001). 여성복 구성. 서울: 교학연구사, p. 28.
17) Nancy Villa Bryk (1988). *American Dress Pattern Catalogs.* New York: Dover Publication, INC, p. 74.
18) Bonnie Holt Ambrose (1997). *The Little Corset Book.* Hollywood: Costume & Fashion Press, pp. 12-22.